

국내 결혼식 문화의 변화에 따른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특성 연구

이 인 에 · 박 주 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의상디자인전공 석사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부교수†

요 약

획일적인 틀에서 벗어나 다양화되는 오늘날의 결혼식 형태는 이제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하였다. 오늘날 결혼식은 ‘나’를 드러내는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웨딩드레스라는 옷을 통해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본 연구는 변화된 결혼식 문화에 나타난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방법은 국내 결혼식 문화의 역사와 최근의 결혼식 문화의 현황, 그리고 국내 웨딩드레스의 역사 및 디자인 구성 요소를 문헌고찰하고, 『mywedding』 매거진 2012년 1월부터 2017년 10월 까지 총 70권에 나온 기사를 통해 국내 결혼식 문화의 특징을 도출하였으며,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조형분석을 위해 실루엣, 아이템, 소재, 색상, 부분 요소로 나누어 사례분석 하였다. 국내 결혼식 문화의 특징은 ‘개성의 표현’, ‘소규모 파티’, ‘합리적 선택’, ‘윤리적 소비’로 나타났으며, 사례분석한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은 직선적이면서 과장되지 않은 형태의 자연스러운 실루엣, 실용적인 활용이 가능한 분리된 형태의 아이템, 잔잔한 레이스의 사용의 증가와 친환경, 면, 스판 등 실험적 사용이 증가한 소재, 내추럴한 흰색을 기본으로 하나 이벤트의 증가로 원색의 활용이 높아진 색상, 절제된 장식으로 단순함을 추구하는 디테일 등 5가지 특성으로 분석되었다. 사례연구에서 분석한 웨딩드레스의 조형적 특성을 국내 결혼식 문화의 특징과 접목하여 분석한 결과, 단순함으로 표현되는 자연스러운 ‘단순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실용성’, 개성적인 표현이 가능하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가변성’, 왜곡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형태의 ‘순환성’과 같은 디자인 특성이 도출되었다. 즉, 변화된 국내 결혼식 문화에 나타난 웨딩드레스 디자인은 단순한 선의 형태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본연의 색상과 일상복과 경계가 없는 실용적인 아이템의 활용, 소재의 특성을 살리고 장식을 배제한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었다.

주제어 : 결혼식 문화, 웨딩 드레스, 디자인 특성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교신저자: 박주희 ju-lee@kookmin.ac.kr

접수일: 2018년 5월 4일, 수정논문접수일: 2018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27일

I. 서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결혼은 당사자들끼리의 사랑에 기반을 둔 결합이라기보다는 부모들 사이 혹은 집안끼리의 일로 인식되고 또 실행되어 왔다(Kim, 2012).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결혼식 행사는 오랜 세월동안 당사자들의 관계를 넘어서는 큰 행사로 치러져왔다. 이후 196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계층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20세기 후반까지 상류층의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었다. 최근의 새로운 결혼식 문화는 21세기 들어 변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허례허식적인 결혼식 문화보다는 차별화된 결혼식 문화를 선호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즉 오늘날의 결혼은 배우자 선택에 있어 과거 가문을 중시하던 것에서 성격이나 가치관 등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고방식으로 변화되었고, 결혼식 행사도 허례허식을 뺀 소박한 결혼식을 뜻하는 ‘작은 결혼식’ 또는 ‘셀프웨딩’ 등의 소규모 형태로 바뀌면서 그 변화를 맞고 있다. 2014년 통계청은 결혼비용의 거품을 빼고 실속을 높인 최근의 결혼문화를 ‘뉴블루슈머 6’ 중 하나로 선정하여 앞으로 작은 결혼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가격이 저렴한 허니문 여행, 작은 집을 개조하는 신혼집 인테리어 사업 등이 유망 사업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Kim, 2014).

본 연구는 달라진 결혼식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웨딩드레스의 디자인에 최근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의 변화된 결혼식 문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있다. 이는 웨딩산업의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결혼학, 가정학 등의 전

문서적과 디자인 서적, 학위논문, 인터넷 자료를 활용한 문헌연구와 웨딩매거진 『mywedding』 기사의 내용분석, 그리고 웨딩드레스 사진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로 진행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 결혼식 문화의 역사와 웨딩드레스의 역사 및 디자인 구성 요소, 국내 결혼식 문화의 현황을 고찰하고, 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해 국내 결혼식 문화의 특징을 도출하며, 사례연구를 통해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 논의한다. 『mywedding』은 예비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파워를 가진 국내 웨딩매거진 중 하나로 가장 높은 구독률을 보이며, 디지털 라이브러리의 도입으로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모든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객관적인 자료로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사례연구를 위한 자료로 선정하였다. 연구범위는 『mywedding』의 2012년 1월호부터 2017년 10월호로 설정하였다. 2012년은 여성가족부와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추진한 작은 결혼식 캠페인이 실시된 해로 국내에서 기존의 허례허식의 결혼식 문화가 소박한, 소규모 등으로 설명되면서 점차 변화하는 결혼식 문화 현상이 대중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II. 이론적 고찰

1. 국내 결혼식 문화의 변천

1) 국내 결혼식 문화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혼례란 혼인을 치를 때 따르는 의례와 절차로 일생 중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행사로 여겨졌다. 1900년대 초반 직, 간접적으로 수입된 서구 문물과 새로운 사상의 영향으로 전통적 의례의 형식이 변화하거나 간소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혼례에도 영향을 미쳐 신식혼례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Hong et al., 2002). 1934년 조선총독

부가 발표한 의례준칙은 전통의례에 기반을 두고 세부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일제에 의해 강요된 것이기는 했으나, 혼례의 간소화와 신식혼례의 보편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Hong et al., 2002).

해방 이후 모든 풍습이 혼란을 겪을 때 혼례문화 역시 같은 시기를 겪었으며 전래의 구식과 서구의 신식이 혼용되어 나타났다. 이 시기에 대다수 사람들은 전통 혼례를 치렀으나 일부에서는 ‘구식’과 ‘신식’, 두 번씩 예식을 올리기도 하였다(Kwon, 2014). 정치적으로 미군의 통치상황에 처한 우리나라는 미국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이 확산되어 점차 혼례관행도 서구식 양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Chang, 1996).

1960년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은 급속한 산업화 및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사회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 가족구조에 있어서도 핵가족화가 진행되었다(Chang, 1996). 197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는 남녀평등 사상의 확산, 교육기회의 증대, 경제개발 계획의 실천, 물질만능주의와 상업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체제 등의 변화가 있었다. 산업화 과정 이후의 도시화 현상 등에 의해 가족규모의 단순화가 가속되었으며, 매스컴의 영향으로 개인 생활의 많은 부분이 변화했다. 1977

년 개정된 혼인법에 의해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는 부모의 강요나 간섭 없이 당사자들의 자유선택에 따른 합의로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과거 가문간의 결합을 의미했던 전통적 결혼가치관에서 벗어나 서구적 성격의 개인주의적 결혼관을 갖게 되었다(Chang, 1996). 한편 이러한 서구화, 간편화는 상품화, 소비조장 등의 왜곡된 현상을 수반했으며, 결혼식 문화에 있어서 계층간 양극화로 이어졌다.

1990년대 후반의 IMF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는 한국의 빈부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이는 결혼식 문화에도 반영되어 결혼식 소비 또한 양극화되어 나타났다(Lee, Y. J., 2008).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국만의 독특한 결혼식 문화로서 전통적인 특성과 근대적인 특성들 혼재를 들 수 있는데, 약혼식, 함들이, 폐백, 이마지 등 전통적인 혼례의 현대적 변용이며 예식장 결혼식과 신혼여행은 개화기 이후 일본문화와 서구문화가 유입되면서 정착된 근대적 특성이다(Choi & Lee, 2007). 이와 같은 우리나라만의 결혼식 특성은 21세기 들어 문화교류가 증가하면서 점차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결혼식의 시간, 장소, 식순이나 방법 등의 결혼식 관련 문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Table 1. 국내 결혼식 문화의 역사.

| 구분 | 시기 | 요약 |
|------------|--------------------|---|
| 서양문화의 유입 | 1800년대 후반 ~ 1930년대 | 관혼상제에 따른 유교적 혼례에서 종교계를 중심으로 서양식 혼례식으로 변화되기 시작함 |
| ↓ | | |
| 신식과 구식의 혼재 | 1940년대 ~ 1950년대 | 해방과 전쟁 등 사회적 혼란기를 겪으며 신식과 구식의 예식문화가 혼재되어 나타남 |
| ↓ | | |
| 계층의 양극화 | 1960년대 ~ 1980년대 | 경제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로 인한 예식문화에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나타남 |
| ↓ | | |
| 상업주의화 예식 | 1990년대 ~ 2000년대 초 | 전통적인 혼례와 서구문화가 혼재된 상업주의화 예식 문화를 형성함 |
| ↓ | | |
| 예식의 다양화 | 2000년대 초 ~ 현재 | 허례허식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예식문화로 점차 변화하기 시작함 |

이른바 ‘착한 결혼식’, ‘셀프웨딩’, ‘친환경 결혼식’ 등의 형태로 허례허식 결혼관에 반하는 건전하고 개성 있는 예식문화가 주목받는 등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 결혼식 문화의 역사는 <Table 1>로 정리될 수 있다.

2) 국내 결혼식 문화의 현황

오늘날 과도한 결혼 비용의 부담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3포 세대’와 결혼비용 증가로 결혼 생활을 빚으로 시작하는 ‘웨딩푸어’를 양산하고 있다.

2015년 한국어성정착연구원의 한 조사에 따르면 대상자의 75.8%가 결혼 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으며 그 원인으로서는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혼수’와 ‘남만큼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는 의식’을 들었다(Kim et al., 2015). 같은 해에 엠브레인 리서치(Embrain Research)가 발표한 결혼식과 관련한 5년간의 추이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결혼식 방식으로서 ‘경제적이고 실속 있는 결혼식’이 5년 연속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는 ‘소규모 결혼식’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양가의 행사로 여겨졌던 전통적인 결혼식의 개념이 부부가 되는 두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타인에게 과시적으로 보여 지는 결혼식 보다는 당사자들의 실리적 이익 및 정서적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식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1년 3월부터 총리실 주도로 결혼과 관련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허례허식 혼례를 지양하고, 실속 있는 생활 공감형 혼례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검소한 혼례 문화 국민인식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정부 산하 여성가족부는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고 작은 결혼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작은 결혼식에 필요한 정보를 돕기 위해

‘작은 결혼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73개 공공시설예식장의 대관, 운영담당자, 이용시설 및 장비대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작은 결혼식에 대한 궁금증을 상담해주는 1:1 웨딩컨설팅과 무료주례 등의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여 작은 결혼식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Yoon, 2016).

국내 결혼식 문화는 이제 소비의 변화와 더불어 대안적인 결혼식들이 등장하면서 그 영역은 환경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결혼식의 식단을 유기농 음식으로 선택하고, 버려지는 뷔페나 꽃 장식을 대신해 뿌리가 있는 화분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 번 입고 끝나는 웨딩드레스는 합성 섬유 대신 천연소재를 이용해 친환경 소재로 만들거나 결혼식만이 아닌 평상복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디자인을 채택하는 방법을 찾는 등 환경을 생각하는 결혼식 또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구성 요소 및 국내 웨딩드레스의 역사

1)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구성 요소

웨딩드레스의 디자인의 구성 요소 분석을 위해 관련서적 3권(Kang et al., 2009; Oh et al., 2004; Yang & Sung, 2008)과 학위논문 6편(Jeon, 2010; Kim, 2007; Kim & Jung, 2011; Lee, 2004; Park, 2001; Park, 2005)을 분석한 결과, 실루엣, 소재, 색상, 부분 요소의 4가지 요소가 추출되었다. 각각의 요소는 종류별로 구분되어, 실루엣은 벨, A라인, 시스, 머메이드, 앰파이어로, 소재는 새틴, 오간자, 타프타, 조켓, 쉬폰, 벨벳, 브로케이드, 툴, 레이스로, 색상은 흰색과 유색으로 각각 나뉜다. 부분 요소로는 네크라인, 슬리브, 디테일로 1차 구분되며, 네크라인은 다시 라운드, V, 스퀘어, 보트, 오프숄더, 하이, 캐미술, 베어탑으로, 슬리브는 슬리브리스, 쇼트, 롱, 퍼프로, 디테일은 다시 러플, 셔링,

플리츠, 파이핑, 비딩, 애플리케, 코르사주, 리본, 단추로 구분된다.

2) 국내 웨딩드레스의 역사

조선말의 개화와 함께 변진 기독교의 전파는 서구 문화를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여기에는 혼례복도 포함되었다. 1920년 여성들은 쓰개치마를 벗고 단발머리를 시도했다. 최신식 결혼식에서 신부는 흰 저고리와 흰 치마에 흰 양말과 흰 구두를 신고 눈썹까지 내려오는 흰색의 새틴 베일을 썼다. 1930년대 이후 양장의 파급은 활발한데 비해 신식 결혼식의 신부예복으로는 여전히 한복이 착용되었다(Moon, 1995). 1950년대 말부터는 웨딩드레스를 예식장에서 대여하기 시작하여(Kwon & Park, 2006) 1960년대에는 전통 혼례복 대신 서양식 웨딩드레스를 입고 전용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일이 보편화되었다. 1960년대의 웨딩드레스는 단순한 스타일로 허리선을 강조하지 않은 실루엣에 목선이 파인 디자인이었으며 패티코트가 약해지고 짧은 베일을 뺏았하게 화관 위에 세워 신부의 키를 커보이게 하는 스타일과 트레인을 길게 늘어뜨려 드레스를 화려하게 연출하는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70년대의 웨딩드레스는 슬림한 실루엣에 개성을 중시하는 다양한 디자인이 시도되었다. 신부의 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선택해서 입을 수 있었으며 섬유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소재, 특히 레이스의 사용이 증가하였다(Moon, 1995). 주로 신부의 허리선을 강조한 디자인이 유행하였으며 어깨선을 강조한 퍼프소매와 러플스커트에 롱베일이 등장하였으며 레이스 소재를 통해 웨딩드레스가 화려해진 시기이다(Noh, 2015). 1980년대 웨딩드레스는 다이애나비의 풍성한 스커트와 트레인, 복고적 성향이 강한 로맨틱 웨딩드레스가 영향을 주어 어깨와 스커트는 부풀리고 7부의 퍼프 슬리브로 목선을 대담하게 드러내는 스타일이 유행하였다(Kim, 2002). 1990년대는 핏 앤 플레어, H라

인, 머메이드, 시스 등 다양한 실루엣이 등장했으며 네크라인 역시 변화의 폭이 커졌다(Kim, 2002). 1990년대 중반까지는 80년대의 로맨틱 디자인이 공존하여 레이스, 프릴, 리본 등의 장식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과장된 X라인에서 벗어나 A라인 H라인 등 절제된 실루엣으로 변화되어갔으며 어깨선 또한 자연스러워지고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이 인기를 끌었다(Noh, 2015). 2000년대에 들어 웨딩드레스는 실루엣이 단순화되어 A라인이나 H라인 등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차분한 실루엣이 주종을 이루었다(Noh, 2015). 고급스러움과 모던함을 동시에 지향하면서 과장된 실루엣과 화려한 장식대신 우아한 디테일만을 표현한 미니멀 드레스가 트렌드의 한 축을 이루었다. 2010년 이후 최근까지는 ‘셀프웨딩’, ‘작은 결혼식’ 등 소규모 결혼식이 유행하면서 이 전보다 더 미니멀한 디자인이 선호되어 일상복으로 활용이 가능한 심플한 웨딩드레스 스타일이 나타났다.

III. 국내 결혼식 문화의 특징 분석

1.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장에서는 최근의 변화된 국내 결혼식 문화에 나타난 특징을 도출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mywedding』 매거진에 수록된 관련 기사를 수집하였다. 기사 수집의 기준은 ‘혼수’, ‘신혼여행’, ‘신혼집’, ‘결혼비용’, ‘결혼식’ 등 결혼 문화 관련 단어가 포함된 기사로 한정하였으며, 범위는 2012년 1월호부터 2017년 10월호까지 총 70권에 수록된 2,817건의 결혼관련 기사 중 해당 단어가 포함된 112건의 기사를 최종 선정하여 내용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결혼식 문화의 특징으로 ‘개성의 표현’(61건), ‘소규모 파티’(26건), ‘합

Table 2. 국내 결혼식 문화의 특징.

| 구분 | 결혼식 특징 | 결혼식 형태 | 키워드 |
|--------|--|-------------------|-----------|
| 개성의 표현 | ⇨ 절차나 형식에서 벗어남 취향과 개성을 존중 직접 참여하는 것에 의미가 큼 | 맞춤 결혼식 전통혼례 | 개성 취향 |
| 소규모 파티 | ⇨ 이벤트적 성향이 강함 친밀감을 중시하며 다 함께 공유하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짐 | 프리웨딩 애프터 파티 | 자유 친밀감 |
| 합리적 선택 | ⇨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 선호함 허례허식보다 실속을 추구 형식을 줄여 비용 절감 | 알뜰 결혼식 | 경제적 실속 |
| 윤리적 소비 | ⇨ 사람과 자연의 공생에 가치를 둠 기부를 통한 나눔 실천 | 친환경 결혼식 기부 결혼식 | 가치 친환경 |

리적 선택’(16건), ‘윤리적 소비’(9건) 등 4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다(Table 2). ‘개성의 표현’에 해당되는 기사로는 ‘힐링이 필요해’(Kim, S. Y., 2017), ‘특별한 결혼식을 원하세요?’(Jeon & Kim, 2015), ‘소규모 파티’에는 ‘웨딩파티, 어디서 할까’(Paik & Park, 2016), ‘내 생애 최고의 파티’(Park, 2013)가 있었으며, ‘합리적 선택’으로는 ‘웨딩홀로 변신하는 공공기관 난 네게 반했어’(Jeon, 2014), ‘윤리적 소비’로는 ‘착한 결혼식, 함께해요’(Kim et al., 2012) 등의 기사가 포함되었다.

2. 국내 결혼식 문화의 특징

1) 개성의 표현

현대의 결혼준비 세대는 ‘나를 표현하는 것’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 그들은 본인들이 사용할 나만의 가구를 직접 디자인하고, 구매보다는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며, 일상적 공간에 각자의 개성과 취향이 담긴 오브제나 미술품 하나쯤 소장하기를 원한다. 이처럼 취향과 개성이 존중받길 원하는 세대들은 그들의 결혼식도 남들과는 다르게 하고자 한다. 차별화된 감각과 재치 넘치는 아이디어를 담아 그들만의 결혼식 공간을 연출하고 취향과 개성에 따라 미술관, 공연장은 물론 스키장까지도 결혼식 공간으로 변신시킨다. 달리기를 즐

아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커플은 마라톤의 출발선을 연상케 하는 장식과 포토부스를 제작해 그들의 개성이 고스란히 담긴 콘셉트 있는 결혼식을 만든다(Figure 1). 또한 서양 문화로 접철된 국내의 결혼식에서 과감히 전통혼례를 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현대의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전통혼례도 취향을 중시하는 예비부부들에게는 특별한 결혼식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는 세대는 스스로 참여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개성의 표현’ 유형으로 분류된 기사에서는 ‘셀프’라는 표현이 자주 보이는데, 이는 결혼식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장소의 특별한 선택뿐만 아니라 웨딩드레스와 소품 등을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촬영하는 셀프웨딩 촬영에서부터 청첩장과 웨딩부케를 직접 만들고, 결혼식 메뉴를 취향에 맞게 직접 선택하는 일까지 ‘나만의 결혼식’에 ‘나만의 느낌’을 담아낸다.

2) 소규모 파티

최근 이벤트성이 강한 파티웨딩이 틈새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파티웨딩은 기존의 딱딱한 결혼식 형식을 벗어나 웨딩과 파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기획된 새로운 형태의 결혼식 문화로(Lee, K. M., 2008), 당사자 및 하객들이 자유로운 분위



Figure 1. 콘셉트 결혼식.
From Kim and Paik. (2016).
p. 148.
<http://library.designhouse.co.kr>



Figure 2. 웨딩파티.
From Paik and Park. (2016).
p. 158.
<http://library.designhouse.co.kr>



Figure 3. 공공기관 결혼식.
From Jeon. (2014).
p. 182.
<http://library.designhouse.co.kr>



Figure 4. 기부결혼식.
From Kim et al. (2012).
p. 77.
<http://library.designhouse.co.kr>

기 속에서 결혼을 축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다(Figure 2).

연구대상 중 이 유형에 속하는 ‘청첩장 파티’라는 기사는, 매달 한 커플씩을 선정해 지인들을 초대하고 청첩장을 나눠주며 자유로운 분위기의 파티를 여는 것으로, 2012년 2월호부터 2016년 12월호까지 꾸준히 연재되었다. 또한 2017년부터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하객들을 미리 초대하는 또 다른 형식의 피로연 문화로서, ‘프리웨딩(pre-wedding)’이라는 기사가 연재되었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결혼식을 원하는 이들이 추구하는 바는 비슷하다. 축의금을 내고 형식적으로 끝나는 결혼식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고 즐길 수 있는 결혼식을 원하며 좋아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젊은 세대들은 결혼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정신없이 헤치워 버리는 행사가 아닌, 오히려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어 친밀한 축하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하객의 수가 점차 소규모로 변화되는 현재의 결혼식도 진심어린 축하를 나누는 결혼식의 본질에 더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파티’와 관련되어 변화된 결혼식 문화를 설명한 기사들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식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문화로 점차 발전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합리적 선택

『mywedding』 매거진은 <Figure 3>과 같이 결혼식장의 대관료를 줄이는 대신 다른 곳에 더 투자하고 싶어 하는 실속 있는 예비부부들을 위해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서울 시내의 공공기관 웨딩홀을 엄선해 소개하거나, 저렴하게 웨딩드레스를 구입할 수 있는 해외 직구 사이트를 소개하기도 한다. 또한 합리적인 결혼식이 트렌드로 정착되면서 축의금 대신 소형 가전 등으로 축하를 대신하는 하객들이 늘고 있다고 전하며 신혼집의 가구 수는 줄이되 하나하나의 가치를 높이는 혼수 트렌드에 따라 하나의 의자가 소파와 침대의 기능까지 해내는 아이템 등에 관한 기사를 소개하였다.

현대의 결혼세대들에게 결혼식을 위한 비용계획은 ‘허례허식 보다 실속’이 더 중요해졌다. 즉 형식에 맞춰 모든 것을 갖추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결혼 비용을 마련하는 신랑 신부들이 많아지고, 따라서 허례허식보다는 실속에 중점을 두고 결혼을 준비하는 노력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 진다.

4) 윤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란 ‘소비자가 윤리적인 가치관단으

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다(Hankyung Economic Dictionary, n.d.). 윤리적 소비는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환경이나 노동 인권에 대한 평판이 나쁜 기업의 제품을 거부하는 불매운동, 공정 무역이나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만 구매하는 선택적 소비 행동, 생산자나 공동체를 통해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직거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물건을 재활용하는 행위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mywedding』 매거진에서는 2012년 ‘착한 결혼식은 OO이다.’라는 기사를 통해 국내에서 치러지고 있는 새로운 결혼식 문화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옥수수 전분, 한지, 썬기풀처럼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재료로 만든 웨딩드레스, 재생 종이에 콩기름 잉크로 인쇄한 청첩장, 예식 후에도 기를 수 있게 뿌리를 남겨둔 부케, 결혼식장을 장식하는데 쓴 허브 화분 담뿔 등 친환경 결혼식을 실현해 주는 아이터మ్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담뿔을 공정무역 거래를 통한 제품들로 준비하거나 소비자가 물건을 하나 살 때마다 기업이 사회단체에 기부를 약속하는 코즈(cause)마케팅 기업의 제품을 이용하는 방법, 혹은 축의금이나 한 번 쓰고 버리는 화환 대신 쌀을 받아 어려운 곳에 기부하는, 이른바 기부 예식 등 윤리적 소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결혼식 모습이 소개되었다 (Figure 4).

IV. 국내 결혼식 문화의 변화에 따른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특성

본 장에서는 국내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앞에서 도출한 국내 결혼식 문화의 특징의 관점에서 논의하여, 변화된 결혼식 문화에 따라 웨딩드레스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내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분석을 위한 대상으로 『mywedding』 매거진 2012년 1월호부터 2017년 10월호까지 총 70권에서 광고 및 인물중심의 이미지를 제외한 총 1,889장의 이미지 자료를 수집 후, 디자인 구성 요소의 기준에 따라 최종 이미지를 선별하였다.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구성 요소에는 이론적 고찰의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실루엣’, ‘소재’, ‘색상’, ‘부분 요소’, 그리고 변화된 결혼식 문화를 반영하는 ‘아이터మ్’이 추가되었다. 디자인 구성 요소에 따른 이미지 분류는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실루엣, 아이터మ్, 색상, 부분 요소의 경우 흑백사진이거나 촬영 기법이나 포즈 등에 의해 구분이 어려운 이미지를 제외하였으며, 소재의 경우 육안으로 판단이 가능한 재질감의 소재 이미지만을 분석하였다. 또한 하나의 웨딩드레스 이미지에서 두 가지 이상의 아이터మ్이나 소재가 사용된 경우가 있어, 이를 구분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따라서 구성 요소별 최종 선별 이미지의 개수는 다를 수 있으며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수집된 자료는 각각의 분류항목과 연도에 따라 빈도를 분석하고 사례연구 하였다.

1) 실루엣

실루엣 분석의 결과는 머메이드 실루엣 329점

Table 3.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구성 요소별 분석자료.

| 구분 | 실루엣 | 아이터మ్ | 소재 | 색상 | 부분 요소 | | |
|------|-----|-------|------|------|-------|-----|-----|
| | | | | | 네크라인 | 소매 | 디테일 |
| 개수 | 700 | 767 | 780 | 1772 | 1173 | 961 | 697 |
| 세부개수 | - | 799 | 1159 | - | - | - | - |

(47%), A라인 실루엣 186점(26.7%), 벨 실루엣 125점(17.7%), 시스 실루엣 49점(7%), 엠파이어 실루엣 11점(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루엣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머메이드 실루엣은 2012년부터 꾸준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벨 실루엣의 비중이 점차 줄고 A라인 실루엣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Figure 5).

신체의 선을 그대로 따라 타이트하게 만든 몸체에 무릎 아래의 밑단을 플레어나 개더, 플라운스 등으로 장식하여 자연스럽게 퍼지게 하는 머메이드 실루엣은 대체로 간결하게 표현되었으며(Figure 7), 밑단 장식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으며 슬림하게 몸매를 드러내 날씬하고 커 보이게 하는 효과로 인해 가장 선호되는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 가장 기본적인 드레스 형태인 A라인 실루엣은 상체에서 허리까지 타이트하게 맞고 밑단으로 내려갈수록 넓게 퍼지는 클래식 스타일로 나타났다(Figure 8).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벨 실루엣은 허리 아래 스커트가 중 모양으로 둥근 형태를 이루는 대표적인 웨딩드레스 실루엣이다(Figure 9). 시스 실루엣은 몸매를 드러내는 타이트한 형태의 드레스로서 전체적으로 길고 가는 선을 통해 관능적인 느낌을 전달한다. 시스는 머메이드나 A라인, 벨 실루엣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지만, 웨딩드레스 스커트의 폭이 좁아지고 단순해지는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 2012년에서 최근

까지의 변화에서는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엠파이어 실루엣은 가슴 바로 아래 선에서 스커트가 시작 되어 하체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면서도 복고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실루엣으로 표현되었다.

2) 아이템

『mywedding』 매거진의 자료 분석을 통한 최근의 웨딩드레스는 롱드레스의 형태뿐 아니라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진 미니드레스, 팬츠와 재킷을 매치한 수트드레스, 상하의가 분리된 투피스 형태의 드레스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변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템별 분류의 결과로는 롱드레스 649점(84.6%) 외에도, 미니드레스 46점(6%)을 비롯하여 스커트 23점(3%), 블라우스 24점(3.1%), 재킷 18점(2.3%), 팬츠 7점(0.9%), 기타 1점(0.1%)이 분석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 비해 2017년에 아이템의 종류가 보다 다양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Figure 6).

롱드레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미니드레스를 살펴보면 스커트 길이의 축소로 클래식한 분위기 대신 가볍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미니드레스는 <Figure 10>과 같이 루즈하게 몸을 타고 흘러 내리는 편안한 원피스 형태가 많았으며, 몸매를 드러내지 않아 여유로움이 느껴지며, 활동이 편안하여 일상복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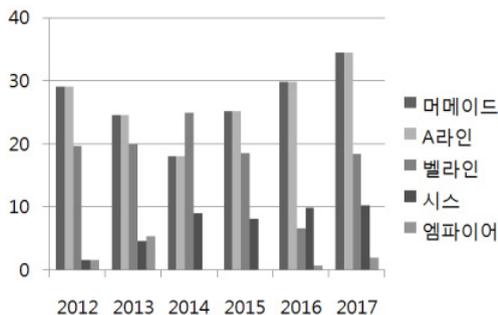


Figure 5. 연도별 실루엣 빈도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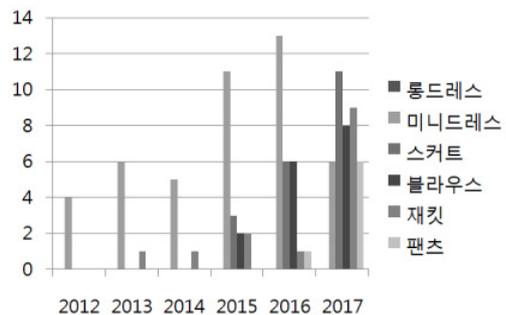


Figure 6. 연도별 아이템 빈도 그래프.



Figure 7. 머메이드 실루엣. From Han, (2013), p. 92. From Park, (2015a), p. 77. From Paik, (2014), p. 74. From Paik, (2015b), p. 132. From Jeong, (2017), p. 63. <http://library.designhouse.co.kr>

Figure 8. A라인 실루엣. <http://library.designhouse.co.kr>

Figure 9. 벨 실루엣. <http://library.designhouse.co.kr>

Figure 10. 미니드레스. <http://library.designhouse.co.kr>

Figure 11. 블라우스와 스커트. <http://library.designhouse.co.kr>

으로 나타났다. 스커트와 블라우스로 구분되는 아이템은 2015년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아우터의 유무에 따라 투피스(two-piece) 혹은 스리피스(three-piece) 룩의 분리 형태로 나타났다. <Figure 11>은 넓게 플레이진 풍성한 스커트와 심플한 블라우스를 매치한 것으로, 동일한 색상으로 드레스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동시에 평상시에는 각각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이면서도 개성 있는 착장이다. 재킷 아이템에서는 몸에 꼭 맞는 클래식한 테일러드 재킷의 활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팬츠 아이템은 2016년에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에 활용도가 크게 증가한 특징을 보인다. <Figure 12>의 재킷과 팬츠 착장의 경우, 팬츠위에 툴 스커트를 덧입어 개성 있는 신부를 연출하였다. 그 외에도 <Figure 13>과 같이 상의와 팬츠가 하나로 이어져 미니멀 스타일을 연출한 점프수트(jump suit) 등 다양한 웨딩드레스 아이템이 나타났다.

3) 소재

소재 분석의 결과는 새틴 283점(24.4%), 툴 223점(19.2%), 오간자 77점(6.6%), 쉬폰 28점(2.4%), 라셀 레이스 281점(24.3%), 케미컬레이스 257점(22.2%), 기타 10점(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새틴은 적당한 무게감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는 소재로 대표적인 웨딩드레스의 소재로 사용

되고 있다. 형태가 잘 잡히고 힘이 느껴지는 소재의 특성에 의해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직선적이고 볼륨감 있는 형태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Figure 14>는 새틴소재를 사용해 볼륨감 있는 스커트의 실루엣을 우아하게 표현하였고 다른 소재의 사용 없이 새틴소재만을 이용해 깔끔하면서도 새틴 특유의 광택을 살려 고급스러운 신부의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레이스는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원단으로 역시 웨딩드레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소재 가운데 하나이다. 웨딩드레스 소재로서 레이스는 46.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화학적 처리에 의해 자수만 남긴 소재로서 케미컬레이스는 문양의 윤곽이 크고 뚜렷한 입체감을 갖는다는 특징을 가졌다. 웨딩드레스에서 케미컬레이스는 전체 혹은 부분 사용으로 장식적 효과를 추구하고 있으며, <Figure 15>와 같이 내추럴한 헤어스타일과 남성적인 슈즈를 매치하여 개성적 표현이 가능하다. 툴 소재는 가볍고 비치는 소재의 특성을 활용해 여러 겹 레이어드하여 풍성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웨딩드레스에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오간자 소재는 새틴보다는 부드러운 광택감과 가벼운 느낌을 주는 소재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한편 쉬폰 소재의 웨딩드레스는 가볍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주로 과

Table 4. 연도별 유색 분류.

| 년도 | 아이보리색 | 금색 | 은색 | 파스텔색 | 원색 |
|------|-------|----|----|------|----|
| 2012 | 20 | 1 | 4 | 3 | 7 |
| 2013 | 14 | 1 | 3 | 8 | 7 |
| 2014 | 10 | 1 | 1 | 11 | 3 |
| 2015 | 16 | 1 | 3 | 7 | 6 |
| 2016 | 12 | 1 | 2 | 11 | 14 |
| 2017 | 11 | 1 | 3 | 8 | 13 |

하지 얇은 실루엣으로 디자인되어 활동적이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기타로 분류된 소재로는 한지, 닥나무, 옥수수 전분, 췌기풀 등을 사용한 천연소재와 면, 스판, 모시 등이 조사되었는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존과는 다른 소재의 활용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Figure 16>의 웨딩드레스는 한지에서 뽑아낸 원단으로 제작한

베어 탑 드레스로 천연소재와 어울리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단정함과 편안함을 표현하였다.

4) 색상

색상 분석의 결과는 흰색이 1526점(86.1%), 유색이 246점(13.9%)으로 나타났다. 흰색은 섬유의 종류와 직조의 방법, 빛에 따라서 다른 색조를 띠는데



Figure 12. 재킷과 팬츠.

From Kim, B. Y. (2017). p. 62. <http://library.designhouse.co.kr>



Figure 13. 점프수트 스타일.

From Paik. (2017a). p. 73. <http://library.designhouse.co.kr>



Figure 14. 새틴소재.

From Paik. (2016b). p. 68. <http://library.designhouse.co.kr>



Figure 15. 케미컬레이스.

From Kim. (2016). p. 70. <http://library.designhouse.co.kr>



Figure 16. 친환경 소재.

From Lee. (2012). p. 70. <http://library.designhouse.co.kr>



Figure 17. 흰색의 사용.

From Joo. (2015). p. 75. <http://library.designhouse.co.kr>



Figure 18. 흰색의 사용.

From Paik. (2015a). p. 77. <http://library.designhouse.co.kr>



Figure 19. 아이보리색의 사용.

From Lee. (2014). p. 50. <http://library.designhouse.co.kr>



Figure 20. 파스텔색의 사용.

From Joo. (2016). p. 58. <http://library.designhouse.co.kr>



Figure 21. 원색의 사용.

From Paik. (2016c). p. 68. <http://library.designhouse.co.kr>

섬유의 성질과 조직감이 주는 텍스처와 이에 따라 빛을 반사하는 상대적인 양이 달라져 다양한 색의 느낌을 나타낸다. <Figure 17>은 텍스처가 느껴지는 오간자 소재로서 새틴 소재보다 빛을 덜 반사해 광택은 줄고 한층 더 부드러운 톤의 흰색으로 연출되었으며, <Figure 18>에서는 시스루 느낌의 얇은 라셀레이스를 사용하여 광택 없이 순수하고 깨끗한 흰색의 분위기를 나타냈다. 아이보리색은 흰색보다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연출이 가능한 색상으로 새틴과 같이 두께감이 있고 광택이 있는 소재에서 많이 나타났다(Figure 19). <Figure 20>은 레이스 바탕에 화사한 핑크톤을 얹어 전체적으로 생기 있어 보이고 같은 색상의 헤어장식을 매치해 개성적 신부를 연출하였다. <Figure 21>은 선명한 오렌지 색상에 오프숄더 디자인을 더해 대담하고 강렬한 느낌을 준다. 이는 피로연이나 애프터파티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 어울리는 룩으로 연출이 가능하다.

유색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아이보리의 비중이 줄어들고, 색상이 점차 다양해지며 흰색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의 변화를 볼 수 있다(Table 4). 결혼식이 점차 다양화되고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 만큼 웨딩드레스에서도 다양한 색상의 조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5) 부분 요소

(1) 넥라인

넥라인은 베어 탑 385점(32.8%), 라운드 넥라인 211점(18%), V 넥라인 157점(13.4%), 오프숄더 넥라인 121점(10.3%), 보트 넥라인 119점(10.1%), 하이 넥라인 99점(8.4%), 스퀘어 넥라인 44점(3.8%), 캐미솔 37점(3.2%)의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심플한 스타일을 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넥라인 중에서 베어 탑은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는데 웨딩드레스의 상체를 드러내 가장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베어 탑 드레스는 다양한 가슴선 디자인을 시도하고 있었으나, <Figure 22>와 같이 몸매를 드러내는 슬림한 실루엣과 이에 어울리는 심플한 가슴선 디자인이 가장 많았다. 라운드 넥라인은 노출이 적어 활동이 편한 디자인으로 나타났으며, V 넥라인은 쇄골이 보일 수 있는 적당한 파임으로 여성스러움을 표현하였다(Figure 23). <Figure 24>와 같은 오프숄더 넥라인은 쇄골과 어깨가 노출돼 성숙미가 느껴지며, 베어 탑과는 달리 팔의 균살을 가려주는 기능도 한다. 보트 넥라인 역시 쇄골과 어깨라인을 옆으로 길게 드러내 목선이 길고 가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 웨딩드레스에 많이 사용된다. 하이 넥라인은 대부분 베어 탑에 시스루 소재를 목선까지 연장한 스타일로 나타났으며, 넥라인을 가리는 형태지만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되었다. 스퀘어 넥라인은 가슴을 깊게 파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스타일로서, <Figure 25>와 같이 빈티지 느낌으로 연출되기도 하였다. 캐미솔 넥라인은 비즈로 장식하여 화려한 디자인과 소너퐁 레이스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한 디자인이 고르게 나타났다. <Figure 26>과 같이 가는 어깨 끈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노출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2) 슬리브

슬리브 분석의 결과, 쇼트슬리브 350점(36.5%), 롱슬리브 306점(36.5%), 슬리브리스 277점(28.8%), 퍼프슬리브 28점(2.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은 장식과 활동에 방해를 주지 않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편안함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쇼트슬리브에는 어깨선을 살짝 가려주는 심플하고 단순한 디자인의 캡(cap) 형태가 많았으며, <Figure 27>과 같은 장식 없이 심플한 디자인의 일반적인 쇼트슬리브가 라운드 넥라인과 함께 단아함을 연출하였다. 롱슬리브는 대체로 몸에 타이트하게 맞는 디자인이 많



Figure 22.
베어탑.

From Paik. (2012a), p. 116. From Paik. (2015a), p. 74. From Paik. (2016a), p. 74. From Lee. (2012), p. 70. From Paik. (2012b), p. 152.
<http://library.designhouse.co.kr> <http://library.designhouse.co.kr> <http://library.designhouse.co.kr> <http://library.designhouse.co.kr> <http://library.designhouse.co.kr>



Figure 23.
V네크라인.



Figure 24.
오프숄더 네크라인.



Figure 25.
스퀘어 네크라인.



Figure 26.
캐미솔.



Figure 27.
쇼트슬리브.



Figure 28.
롱슬리브.



Figure 29.
비딩의 활용.



Figure 30.
서링의 활용.



Figure 31.
파이핑의 활용.

From Lim. (2017), p. 64. From Park. (2015b), p. 89. From Paik. (2017b), p. 58. From Do. (2013), p. 132. From Joo. (2017), p. 67.
<http://library.designhouse.co.kr> <http://library.designhouse.co.kr> <http://library.designhouse.co.kr> <http://library.designhouse.co.kr> <http://library.designhouse.co.kr>

이 나타났는데 장식을 최대한 배제하여 자연스러움을 강조한다(Figure 28). 슬리브리스 디자인은 마른 체형의 여성인 경우 장점을 극대화시켜 여성스러움을 강조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웨딩드레스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이며 미니멀한 느낌을 준다. 퍼프슬리브는 어깨나 슬리브 단에 주름을 잡아 부풀려진 소매로 전체적으로 귀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준다.

(3) 디테일

디테일 분석의 결과는 비딩 322점(46.2%), 러플 137점(19.7%), 어플리케 95점(13.6%), 리본 43점(6.2%), 서링 39점(5.6%), 플리츠 20점(2.9%), 단추 17점(2.4%), 코르사주 14점(2%), 파이핑 10점(1.4%)으로 나타났다.

디테일 중 가장 많이 나타난 비딩은 주로 바디라인을 타이트하게 타고 흐르는 심플한 실루엣에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Figure 29>와 같이 비즈 배열의 간격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추구한 디자인이 많았다. 러플은 어깨나 트레인, 스커트의 볼륨감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담아낸다. 어플리케는 웨딩드레스에 입체감 있는 자수로 좀 더 뚜렷한 장식의 효과를 주는 특징이 있으며 전체적인 사용보다는 부분적 적용으로 웨딩드레스 실루엣에 생기 있는 입체감을 더해준다. 서링은 <Figure 30>에서와 같이 상체의 허리선을 장식하는데 주로 사용되었으며 세밀한 주름이 허리라인을 더욱 가늘어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단추를 사용한 장식은 앞중심이나 네크라인 주변에 작은 단추를 촘촘하게 달아 섬세

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Figure 31>은 오프숄더 네크라인 디자인을 파이핑으로 마무리해 경계를 뚜렷하게 강조하는 장식적 역할을 하였다.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라인에 깨끗한 파이핑 디테일이 더욱더 모던한 느낌을 준다.

요컨대 웨딩드레스의 부분 요소는 화려함과 볼륨감을 부여하는 직접적이고 강한 재료나 기법보다는 과거보다 간결해진 실루엣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고 섬세한 장식 기법들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내 결혼식 문화의 변화에 따른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특성

앞에서 살펴본 웨딩드레스의 조형적 특성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변화된 국내 결혼식 문화의 특징인 개성의 표현, 소규모 파티, 합리적 선택,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특성으로서 단순성, 실용성, 가변성, 순환성이 도출되었다(Table 5).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이, 변화된 결혼식 문화에 따른 웨딩드

레스 디자인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단순성

최근의 예비부부들은 진정한 결혼의 의미에 가치를 둔다. 따라서 불필요한 절차와 틀에 박힌 형식 대신 결혼식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를 실행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웨딩드레스는 단순성의 특성을 가진다.

단순성에 해당하는 웨딩드레스의 실루엣 특성으로는 스커트의 폭과 길이 모두 축소된 형태가 두드러지며 심플하고 자연스러운 선의 사용이다. 점차 규모가 작아지는 결혼식 문화에서 웨딩드레스의 형태도 장소와 규모에 맞게 단순화되어가는 것이다. 거추장스러운 형식과 절차를 버리고 자연스럽게 즐기는 분위기에서 기존의 장식적인 웨딩드레스는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벨라인 실루엣과 같은 크고 화려한 실루엣보다는 머메이 드나 A라인 실루엣이 더 많이 나타났다. 소재에 있어서는 섬세한 무늬를 가진 레이스의 사용이 두드러졌는데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강조하는 디자인이 선호되어지는 만큼 지나치게 광택이 나거나 뻗뻗한 소재의 사용으로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하기 보다는 자연스러움과 장식성을 동시에 가진

Table 5.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특성 도출.

| 웨딩드레스의 조형적 특성 | | | 디자인 특성 | 결혼식 문화의 특징 | | | | | | | | |
|--------------------------------|------------------------------|--------------------------------|----------------------|----------------------------------|-------|--------|--------|--------|--------|--------|--------|--------|
| 실루엣 | 아이템 | 소재 | | 색상 | 부분 요소 | 개성의 표현 | 소규모 파티 | 합리적 선택 | 윤리적 소비 | | | |
| -간결한 선의 사용 -스커트의 축소된 볼륨과 길이 | -다양한 형태의 아이템 -변형이 가능한 분리형 | -레이스 소재 -스판, 천연소재 등 차별화된 소재 | -깨끗한 화이트톤 -강렬한 원색 | -과도한 장식을 배제 -활동성을 고려한 심플한 디테일 | 단순성 | 실용성 | 가변성 | 순환성 | 개성의 표현 | 소규모 파티 | 합리적 선택 | 윤리적 소비 |

레이스로 단순해진 형태감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디테일의 사용은 실루엣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부분적 강조를 위해 활용하였는데 웨딩드레스의 가장 전통적인 베어탑과 라운드, V 넥라인 등이 장식 없이 단순한 스타일로 제안되고, 슬리브 또한 셋 인 슬리브를 기본형으로 하는 단순한 형태가 많았으며 퍼프 슬리브와 같이 장식적인 소매는 매우 낮은 비중을 보였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딩은 단순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가장 효과적인 장식기법으로 활용되었다.

변화된 결혼식 문화에 나타난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단순성은 장식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본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의 표현이다.

2) 실용성

그동안 웨딩드레스는 비실용적인 의복의 형태였다. 그러나 변화된 결혼식 문화에서는 이러한 웨딩드레스에 실용성을 더한 디자인이 나타나고 있다. 한번 입고 끝나버리는 웨딩드레스가 아닌 결혼식과 상관없이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형태의 웨딩드레스 스타일을 지향하는 것이다.

실용성에 해당하는 웨딩드레스의 실루엣은 편안하고 직선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일상복으로도 많이 착용되는 원피스나 팬츠형태의 아이템들로 구성된다. 이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아이템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웨딩드레스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개인의 취향이나 개성을 드러낼 수 있어 점차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외 예식 등 활동이 자유로워야 하는 예식이 자주 시도되면서 기존의 웨딩드레스보다 훨씬 활동적이고 편안한 특성을 가진 아이템들이 선호되기도 한다. 색상은 웨딩드레스부터 일상복까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흰색은 물론 파스텔색이나 원색계열까지 시간과 장

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다양한 범위로 나타났다. 소재는 면이나 쉬폰, 스판덱스가 포함된 소재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활동성과 내구성이 좋은 실용적인 소재들이 주로 사용된다.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나타난 실용성의 특징은 결혼식이라는 형식에 구속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과장되지 않은 실루엣의 경제적이고 다양한 활용성을 갖춘 스타일의 추구로 나타난다.

3) 가변성

과거에 웨딩드레스의 형태는 매우 한정적이었으나 예식이 다양화되고 장소와 시간 등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면서 웨딩드레스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가변성은 아이템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의 웨딩드레스는 기존의 롱드레스의 형태에서 미니드레스, 스커트, 블라우스, 재킷, 팬츠 등 일상복과 경계가 없는 아이템들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결혼식은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피로연이나 예식 전 웨딩촬영, 리마인드 웨딩 등 본 결혼식 외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를 즐기는 상황이 증가하면서 몇 가지의 아이템들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분리된 아이템 형태의 웨딩드레스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가변성의 특징에서 보이는 웨딩드레스의 실루엣은 일상복의 형태로서 A라인이나 H라인의 심플한 스커트나 팬츠에 블라우스나 재킷 등을 매치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아이템의 매치를 변형할 수 있는 분리형이므로 장소와 콘셉트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여러 아이템과의 매치를 고려해 장식성이 적고 레이어링이 쉬운 베이직한 아이템들이 높은 비중을 보이며, 디테일의 경우 레이스 소재를 사용해 특별한 장식적 요소 없이 소재만으로 분위기를 표현하거나 비즈장식 등의 섬세한 디테일도 눈에 띈다.

웨딩드레스 디자인 특징에서의 가변성은 기존의 웨딩드레스에서 연상되던 ‘한번 입고 마는’ 혹은 ‘빌려입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소유하고 추억하며 언제든 상황과 분위기에 맞게 활용해 입을 수 있는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4) 순환성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특징에서 나타난 순환성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공생과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패션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오가닉 소재와 재생섬유 등을 사용한 제품을 만들어 ‘에코 패션’, ‘친환경 패션’ 등의 주제로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윤리적 소비를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결혼식의 여러 형태 중 ‘친환경 결혼식’, ‘그린웨딩’ 등 환경을 주제로 결혼식을 치르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도 연결된다.

순환성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웨딩드레스 디자인은 환경을 주제로 하는 만큼 단순하고 군더더기 없는 자연스러움을 강조한다. 실루엣에서는 과장되지 않은 편안함이 느껴지며, 소재는 잘 썬지 않은 합성섬유 대신 한지, 닥나무, 옥수수 전분, 췌기 풀 등의 천연소재를 사용한다. 가공되지 않은 천연의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색상은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색상이 수수하게 표현된다. 네크라인이나 슬리브의 디테일 역시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기본으로 장식은 배제하거나 리본이나 코르사주를 이용한 포인트 디테일을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활용한다.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나타난 순환성의 특징은 최대한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인공적인 소재의 사용을 줄이고 몸을 구속하지 않는 형태로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자연그대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V. 결론

최근의 국내 결혼식 문화는 획일적인 틀에서 벗어나 이전보다 다양한 예식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자신을 표현하는데 보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젊은 세대들에 의해 점차 그 영역이 넓어져 허례허식으로 대표되던 현대의 결혼식 문화가 최근 새로운 결혼식 문화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된 결혼식 문화에 대해 살펴보고 변화된 결혼식 문화의 특징과 이에 따른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mywedding』 매거진의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본 변화된 국내 결혼식 문화의 특징은 ‘개성의 표현’, ‘소규모 파티’, ‘합리적 선택’, ‘윤리적 소비’로 나타났다. 최근의 결혼식 문화에서는 ‘나’를 표현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며 좋아하는 것을 서로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교감하기를 원한다. 또한 형식에 맞춰 모든 것을 갖추기보다 합리적 소비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고 환경으로부터 균형 있는 윤리적 소비에 관해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둘째,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6년간의 사례를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구성 요소인 실루엣, 아이템, 소재, 색상, 부분 요소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전체적인 실루엣은 과장되지 않고 몸매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 단순한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활동하는데 용이하도록 스커트의 길이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미니드레스나 일상복 활용이 가능한 원피스형태, 분리형 아이템으로도 나타나 매우 실용적이었다. 소재는 섬세한 레이스 소재의 활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간결해진 실루엣에서 레이스 소재의 사용을 통해 웨딩드레스가 가진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친환경 소재의 사용이나 모시, 스판덱스 등 기존과는 다른 소재

의 활용도 증가하였다. 색상은 부드러운 흰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식 이외의 이벤트가 늘어남에 따라 파스텔이나 원색과 같은 유색 드레스의 활용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분 요소 역시 단순해진 실루엣을 해치지 않는 심플한 요소가 많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mywedding』 매거진의 내용분석과 웨딩드레스 디자인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결혼식 문화의 변화에 따른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단순성, 실용성, 가변성, 순환성이 도출되었다. 단순성은 군더더기 없는 선의 사용으로 본래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형태의 자연스러운 편안함을 이르며, 실용성은 결혼식이라는 형식에 구속받지 않으며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디자인의 추구를 이른다. 가변성은 다양한 분위기에 맞추어 매칭이 가능한 분리형 아이템의 활용을 통해 실용적이면서도 개성적 표현이 가능함을 이르며, 순환성은 자연적인 소재의 사용으로 몸을 구속하지 않고 형태를 과장하거나 부풀리지 않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의 추구를 이른다.

이와 같이 변화된 결혼식 문화에 나타난 웨딩드레스 디자인은 단조로운 선의 형태로 단순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일상복과의 경계가 모호한 활동적이고 실용적인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장식성이 있는 섬세한 레이스의 사용과 부드러운 색상의 사용, 과한 장식을 배제한 포인트 디테일로 단순화된 실루엣에 어울리는 아름다움을 제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계기로 보다 다양한 소재 및 디자인의 웨딩드레스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본 논문이 웨딩드레스가 향후 웨딩 산업에서 더 경쟁력 있는 영역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References

- Chang, H. K. (1996). On the changes of marriage customs due to Korean social fluctuation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4(1), 147-161.
- Choi, H. M., & Lee, I. S. (2007). *A study on the wedding dress focusing on design effects of laces in contemporary fash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Do, N. H. (2013, March). Spring Color. *mywedding*, p. 132.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3-3/?startpage=1>
- Han, H. S. (2013, June). Bride with the Flower. *mywedding*, p. 92.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3-6/?startpage=1>
- Hankyung Economic Dictionary. (n.d.). 윤리적 소비 [Ethical consumption]. *Hankyung Economic Dictionary*. Retrieved March 15, 2017, from <http://dic.hankyung.com/apps/economy.view?seq=7611>
- Hong, N. Y., Lee, E. J., & Park, S. H. (2002).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Korean wedding culture in 20th centur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11), 141-156.
- Jeon, H. R. (2014, November). 웨딩홀로 변신하는 공공기관 난 네게 반했어 [A Public institution that turns into a wedding hall i am in love with you]. *mywedding*, p. 182.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4-11/?startpage=1>
- Jeon, H. R., & Kim, S. Y. (2015, May). 특별한 결혼식을 원하세요? [Do you want a special wedding?]. *mywedding*, pp. 62-73.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5-5/?startpage=1>
- Jeon, W. H. (2010). *An analysis of expression traits in fashion image shown from 2000s' wedding dress sty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 Jeong, J. U. (2017, April). Pure Romanticism. *mywedding*, p. 63.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7-4/?startpage=1>
- Joo, H. S. (2015, October). Chic Aura. *mywedding*, p. 75.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5-10/?startpage=1>
- Joo, H. S. (2016, December). IN THE PINK. *mywedding*, p. 58.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6-12/?startpage=1>
- Joo, H. S. (2017, June). Romantic Nostalgia. *mywedding*, p. 67.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7-6/?startpage=1>
- Kang, S. R., Choi, H. J., Ahn, J. G., Lee, B. H., & Han, K. H. (2009). *웨딩드레스 및 이브닝드레스 제작 실무* [Practice in making wedding dress and evening dress]. Seoul: Kyungchunsa.

- Kim, B. H. (2017, September). Fall in Love. *mywedding*, p. 62. Retrieved September 15,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7-9/?startpage=1>
- Kim, E. Y. (2014, January 28). 통계로 보는 ‘뉴 블루슈머 6’ [‘New Bluesumer 6’ in statistics]. *Fashionn*. Retrieved March 17, 2017, from http://www.fashionn.com/board/read_new.php?table=1006&number=6037&page=1&sel=all&search=스물웨딩&sel_cat=
- Kim, H. J. (2016, March). Fascinating Attraction. *mywedding*, p. 70.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6-3/?startpage=1>
- Kim, H. J., & Jung, S. H. (2011). A study on the minimalism in contemporary wedding dr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1(4), 81-99.
- Kim, H. J., & Paik, S. I. (2016, July). 콘셉트, 살아있네 [Concept, it's alive]. *mywedding*, p. 148.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6-7/?startpage=1>
- Kim, H. J., Paik, S. I., & Park, J. S. (2012, August). 착한 결혼식, 함께해요. [Good wedding, let's be together]. *mywedding*, p. 77.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2-8/?startpage=1>
- Kim, K. H. (2002). *Comparison of Korean women's preference for wedding d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Kim, K. I. (2012).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 [A modern family, modern marriage]. Seoul: Bluehistory.
- Kim, S. Y. (2017, March). 힐링이 필요해 [Need some healing]. *mywedding*, pp. 161-165.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7-3/?startpage=1>
- Kim, Y. J. (2007). *A study on the size system of wedding dress and the preference degree of desig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S. H., Lee, M. S., & Lee, S. M. (2015). 고비용 혼례 문화 개선을 위한 작은 결혼식 국민의식 및 실태 [A small wedding ceremony for the improvement of high cost marriage culture]. *KWDI Brief*, (36), 1-8.
- Kwon, S. K., & Park, S. K. (2006). A study on wedding dress design for modern application of traditional costum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6(2), 55-75.
- Kwon, S. H. (2014). *Cultural history of modern wedding hall in Korea mainly focusing on Seoul a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E. J. (2004). *A Study on the analysis for wedding dress design and sensibility image and prefer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 Lee, K. M. (2008). *파티 마케팅* [Party marketing]. Seoul: Pampas.
- Lee, N. J. (2012, August). Love for Green. *mywedding*, p. 70.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2-8/?startpage=1>
- Lee, N. J. (2012, January). Love story in Paris. *mywedding*, p. 70.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2-1/?startpage=1>
- Lee, N. J. (2014, January). Pink Shoes. *mywedding*, p. 50.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4-1/?startpage=1>
- Lee, Y. J. (2008). A marriage system and wedding custom of Korea in the early part of the 21th century. *실천민속학연구*, (12), 5-42.
- Lim, J. Y. (2017, August). My Fair Lady. *mywedding*, p. 64. Retrieved September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7-8/?startpage=1>
- Moon, Y. K. (1995). *A study on the modern history of Korean wedding d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Noh, H. K. (2015). A study of history of Korean wedding styling. *The Korea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13(1), 515-523. doi:10.14400/JDC.2015.13.1.515
- Oh, S. S., Lim, S. Y., Moon, Y. P., & Son, Y. K. (2004). *웨딩드레스 제작 및 실무* [Wedding dress making and practice]. Seoul: Haksulbook.
- Paik, S. I. (2012a, July). Timeless Beauty. *mywedding*, p. 116.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2-7/?startpage=1>
- Paik, S. I. (2012b, August). Walk in the Strange City. *mywedding*, p. 152.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2-8/?startpage=1>
- Paik, S. I. (2014, September). Blooming Day. *mywedding*, p. 74.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4-9/?startpage=1>
- Paik, S. I. (2015a, February). My Pretty Women. *mywedding*, p. 74.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5-2/?startpage=1>
- Paik, S. I. (2015b, August). Age of Innocence. *mywedding*, p. 132.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5-8/?startpage=1>
- Paik, S. I. (2016a, February). Fascinating Women. *mywedding*, p. 74.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6-2/?startpage=1>
- Paik, S. I. (2016b, May). Modern Romanticism. *mywedding*, p. 68.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6-5/?startpage=1>
- Paik, S. I. (2016c, August). One Summer Night. *mywedding*, p. 68.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6-8/?startpage=1>
- Paik, S. I. (2017a, February). Avant-garde Wedding. *mywedding*, p. 73.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7-2/?startpage=1>
- Paik, S. I. (2017b, March). Designer's Best Dress. *mywedding*, p. 58.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7-3/?startpage=1>

- tartpage=1
- Paik, S. I., & Park, H. Y. (2016, March). 웨딩파티, 어디
서 할까 [Where should we go for a wedding party].
mywedding, p. 158.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6-3/?s
tartpage=1](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6-3/?startpage=1)
- Park, H. Y. (2015a, July). Glamorous Touch. *mywedding*,
p. 77.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
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5-7/?startpage=1](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5-7/?startpage=1)
- Park, H. Y. (2015b, October). Blooming Beauty. *mywedding*,
p. 89.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
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5-10/?startpage=1](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5-10/?startpage=1)
- Park, J. E. (2001). *A study on the fashion change of modern
wedding d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Park, J. H. (2005). *A study of preference about wedding
dress design according to body shape for adult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Park, J. S. (2013, June). 내 생애 최고의 파티 [The best
party in my life]. *mywedding*, p. 150.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
WE/2013-6/?startpage=1](http://library.designhouse.co.kr/library/ebook/WE/2013-6/?startpage=1)
- Yang, J. E., & Sung, O. J. (2008). *드레스 메이킹* [Dress
making]. Seoul: Kyungchunsa.
- Yoon, H. S. (2016, May 23). 자녀와 부모 모두를 위한
'작은 혼례문화' ['Small wedding culture' for both
children and parents]. *Korea.kr*. Retrieved June 2, 2017,
from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
newsId=148815578](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15578)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Wedding Dress Design According to the Change of Domestic Wedding Culture

Lee, In Ae · Park, Ju Hee[†]

Master, Dept.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Kookmi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Abstract

Today's wedding diversified escaping from a standardized frame has been established as a new culture. Now wedding is used as a means of representation showing 'myself', expressing the identity of individual's own as another mode through costume, a wedding dres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wedding dress design shown from such a changed wedding culture. Hence, based on the theoretical analysis,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history and a recent situation of the domestic wedding culture and examined the history of a domestic wedding dress and its design elements. As for the empirical study, articles of magazine 『mywedding』 on 70 volumes from January, 2012 to October, 2017 were collected to identify changed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wedding culture shown from its present situation to be analysed 4 characteristics including 'expression of personality', 'small party', 'rational choice', 'ethical consump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a wedding dress according to features of the domestic wedding culture in the case study, it derived design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simplicity, practicality, variability and circularity. The simplicity may be explained as a natural form expressed with the simple, practicality as a form used in various manners without regard to formality, variability as a form changed according to space-time and expressed in an individual manner and circularity as a natural and beautiful form undistorted. In other words, wedding dress design in the changed domestic wedding culture pursued the natural using a simple line, utilized plain colors, practical and borderless items with everyday wear, suggesting design faithful to the basics that made the best of characteristics of a material and excluded ornamentation.

Key words : wedding culture, wedding dress, design characteristics